‘교과전형’ 신설 ‘지역전형’ 확대…“수능 최저 중요”

연세대·성균관대·서강대·건국대 등 학생부교과전형 도입

지역전형, 일반전형보다 경쟁률 낮아 … 의·약학계열 유용

9월 10일부터 전국 대학이 2022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6번의 지원 기회 중 상향, 적정, 안정 지원을 어떻게 분배할지 고민할 시점이다. 2022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학생부교과전형’을 신설했다. 또 거주지역 소재 대학 진학에 유리한 ‘지역인재전형’이 확대된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지난해와 달리 전형별 합격 전략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시모집 전형은 크게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으로 나뉜다. 보통 학생들은 수능 모의평가와 교과 성적, 비교과 활동 등을 분석해 유리한 전형에 지원한다.

특히 학생부교과전형은 주요 과목별 성적을 대학별 기준에 따라 그대로 반영하는 ‘정량평가’여서 비교적 합격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입시 결과도 공개하는 대학이 많아 전년도 결과를 참고해 합격 가능성을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학별 반영 교과 확인도 필수다.

다만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은 모집인원이 적은 편이어서 교과전형으로 합격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평균 내신등급이 1등급대에 들어야 경쟁력을 가진다. 수능 최저를 충족할 경우 다른 지원자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입시업계에 따르면 연세대·성균관대·서강대 등이 올해 대입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을 새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연세대는 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3 재학생 가운데 총 523명을 선발한다. 학교별로 고3 재적 학생 수의 5%까지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다. 특성화고, 영재학교,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 자격에서 제외된다.

성균관대의 경우 총 361명을 선발한다. 연세대와 달리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다. 인문·자연 각 계열마다 3과목 중 2개 합이 5등급 이내, 공통 항목으로는 영어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다.

이 외에 서강대 172명, 건국대 340명 규모로 교과전형을 신설했다. 이들 대학은 수능 최저를 적용한다. 398명을 선발하는 동국대는 연세대와 동일하게 수능 최저가 없다.

한 입시 전문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면접이 늘어나면서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이 커졌다”면서 “입시 결과가 높다는 선입관 때문에 지원율이 낮아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의 경우 내신등급이 낮아도 합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대입에서는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가 지난해보다 확대된다.

입시 전문가들은 거주지역 소재 대학 진학을 노리는 수험생은 지역인재전형을 노리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는 국립대와 사립대를 합쳐 총 2만442명이다. 지난해 1만6441명보다 4001명 증가했다.

지역인재전형은 대학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지원이 가능해 일반전형보다 경쟁률이 다소 낮은 편이다.

지역인재전형을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집단위로는 의·약학계열이 꼽힌다. 대다수 대학이 의·약학계열에서 일반전형보다 지역인재전형으로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완화된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는 “수능이 9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도 지원할 전형에 대해 고민하는 수험생이 많을 것”이라며 “올해에 바뀌는 전형들을 중심으로 폭넓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강의도 축제도 ‘메타버스’로

전남대 ‘메타버스 가상캠퍼스’ 구축…기획위원회 출범

전남대학교가 최근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를 활용해 가상캠퍼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메타버스’란 가상,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세계를 말하는데, 가상현실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콘텐츠라는 점에서 ‘가상현실’(VR)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최근 ‘메타버스 캠퍼스 기획위원회(위원장 주정민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출범시키고, 기획위원회의 회의와 활동을 메타버스 상에서 진행하면서, 현재의 기술여건을 고려해 단계별 가상캠퍼스 구축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전남대 메타버스 가상캠퍼스가 구축되면 물리적, 공간적 제약이나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증 등으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도 현실세계에서와 같이 양방향 소통을 하며 강의와 수업, 세미나 등을 진행할 수 있고 축제나 입학식, 졸업식 등 다양한 다중참여 행사도 가질 수 있다.

전남대는 AI융합대학 출범과 첨단 융·복합 학과 개설은 물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선정 등으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분야의 교육과 연구 기반을 갖추고 있어,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성택 총장은 “현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있다.”며, “메타버스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이전과 다른 대학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교육청 ‘학교공간혁신사업’ 교직원·학생 만족도 높아

교직원 89.4%·학생 84% 긍정

배움·놀이 등 활동, 소통에 도움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공간혁신사업에 대한 교직원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은 2019년과 2020년 학교공간혁신 사업을 추진했던 84개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학교공간혁신 사업 전반에 대해 교직원 89.4%, 학생 84%가 긍정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부정평가는 교직원 1.7%, 학생 3.8%에 불과했다.

설문 문항 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변화된 학교공간에 만족한다’는 질문에 교직원 91.6%, 학생 85.2%가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사업 결과로 만들어진 배움공간, 생활공간, 놀이공간 등에 대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고 안정된 느낌을 받으며, 소통에 도움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교공간혁신 사업이 의미있다’는 질문에는 교직원 91%, 학생 79.2%가 긍정의 답변을 내놓았다. 이는 사업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한 공감도가 높음음을 의미한다.

‘학교공간혁신사업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교직원 88.8%, 학생 81.4%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담당자의 업무 경감 대책과 사업 예산 증액요구가 많았다.

변윤섭 전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은 “이번 설문 결과를 학교공간혁신 사업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전기획에 반영해 현장과 함께하는 전남 미래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대 SW중심대학사업단, 지역민과 함께하는 AI·SW코딩도서관 ‘성료’

조선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이 최근 광주 광산구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랑말랑 재미나는 AI·SW 코딩도서관’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사업단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AI와 SW 이해와 활용, 로봇활용코딩, 코드 마스터, AI의 이해 등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조선대 제공〉

호남대, ‘AI특성화’로 취·창업 꽃길 연다

인공지능 특성화 부분 2년연속 ‘국가서비스대상’ 수상

대학 인공지능(AI)특성화 부문 2년연속(2020, 2021년) ‘국가서비스대상’을 수상한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가 수 년 전부터 축적해 온 AI특성화 교육역량을 앞세워 학생들의 취·창업에 꽃길을 열어가고 있다.

지난 2018년 교육부의 4차산업혁신선도대학으로 선정된 호남대학교는 4차산업혁명시대 창의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획일화된 학과편제와 교육과정을 탈피, AI중심의 혁신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우수 교수진 확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발 빠른 대처를 해왔다.

호남대학교는 특히 AI국가전략 발표와 광주광역시 AI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지난 2019년부터 ‘드림 2028’ 대학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해오며 국내 유일의 ‘AI특성화대학’으로 자리매김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미달 등 지역대학의 총체적 위기 상황속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고 있다.

호남대는 그동안 LINC+, PRIME, 4차산업혁명선도대학 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IT분야의 역량을 키워왔으며, 2020년에는 지역혁신플랫폼사업,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광역시 주관 AI융합대학 지원사업,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돼 AI특성화 추진에 더 큰 동력을 확보했다. /채희종 기자 chae@

동강대 군사학과 졸업생 92.6% 직업군인 취업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 군사학과가 2021년도 졸업생의 90% 이상이 직업군인의 꿈을 이뤘다.

동강대 군사학과(학과장 조동권)는 지난 7월 말 기준 올해 학과 졸업생 55명 중 50명(남 32?여 18명)이 직업군인으로 취업했다.

대학에 진학한 1명을 제외하면 54명 중 50명이 직업군인 시험에 합격해 92.6%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직업군인 꿈을 이룬 50명은 장교 과정(공무원 7급)의 경우 육군3사관학교 3명, 부사관 과정(공무원 9급)은 특전부사관 2명, 공군부사관 1명, 육군부사관 44명이다. 동강대 군사학과는 지난 2011년 개설 후 2014년과 2016년, 2018년, 2020년 육군본부 전국 최우수 군사학과로 평가받았다.

한편 동강대 군사학과는 오는 9월10일부터 시작되는 2022학년도 수시 1차 모집에서 3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